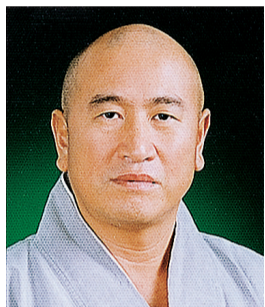


## 무공저

### 의미 있는 존재

식물을 창가에 두면 잎도 가지도 모두 한 쪽으로 기운다. 해가 있는 쪽이다. 식물의 이런 성질을 굴일성(屈日性)이라고 한다. 식물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어둠을 기피하고 빛을 좋아한다. 생명에 이로운 기운이 빛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다르지 않다. 굴일성이 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가 있는가 하면 피하고 싶어 하는 이가 있다. 전자는 해와 같은 존재, 후자는 어둠과 같은 존재이다.



중상 (청계사 회주)

전자는 생명에 이로운 기운을 가진 사람, 친절하고 배려심 깊으며 긍정의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다. 옆에 있으면 용기가 나고 기운이 솟는다.

사람은 타고난 선한 본성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고귀한 일은 없다. 하지만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매정할 만큼 사무적이어서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 환자를 3인칭의 대상으로 대할 뿐 2인칭의 영역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유마 거사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고, 중생이 나오면 보살도 낫는다.”라는 대자대비(大慈大悲)를 몸소 보였다.

부처님께서는 동체대비(同體大悲)를 가르치셨다. 모든 중생이 겪는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삼는 자비(慈悲)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나와 더불어 남이 존재하고,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며 인간과 더불어 자연이 공존하는 ‘한 몸’인 진리다.

### 남에게 긍정적인 영향주는 일로 이웃 도와 차별의식을 누르고 공감의 창 늘리는 노력

삶의 매 순간이 경쟁인 치열함에 길이 들어서, 남을 밟고 올라가야 살아남는다는 압박감이 깊어져서 선함은 나 이만큼 뒤로 밀린다. 그렇게 수십 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탐욕과 이기심만 가득한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혹 성공을 했다 해도 주변에 사람이 없고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어 허망하기만 한 겹겹이 인생들이 많이 있다.

인생이 알차게 되려면 삶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길은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뭔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면서 남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전문지식을 이용해 이웃을 돕는다면 삶에는 의미가 담긴다.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그런 인생은 의미로 충만해질 수 밖에 없다. 좋은 예가 의사라는 직업이다. 사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깨닫지 못하여 남으로 여기고, 편을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그러한 잘못된 견해를 벗어난 불보살에게는 동체대비가 그저 자연스러운 것일 뿐이다.

우리는 누구의 울음에 공감하는가. 차별의식을 누르고 공감의 창을 조금씩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슴이 따뜻해질 것이고 이 세상이 좀 더 살만해질 것이다.

요즘 폭염 못지않게 열 받게 하는 일 많은 세상에 간혹 한 줄기 바람처럼 시원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불평등, 부정의, 부정부패, 아집과 편견의 ‘악천후’ 속에서도 이만큼 돌아가는 게 아닐까 싶다. 각자 조금씩만 이웃에게 더 잘하면 좋겠다. 세상이 어떠하든 결국은 행동하지 않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 ‘불교스카우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가다’

### 잼버리 대회 사상 첫 수계법회 봉행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서 156개국 대원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가 열렸다. 불교스카우트 연맹(연맹장 성행스님)은

8월 6일 잼버리 대회 종교 행사일을 맞아 잼버리 법당 옆 종교 활동장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봉행된 수계법회는 103년 세계잼버리대회 사상 첫 수계법회이다.

한국불교스카우트 연맹 사무총장 수인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집전으로 시작된 이날 수계법회는 폭염을 고려해 약식으로 진행됐다. ‘천수경’ 봉독에 이어 성행스님

을 계사로 스카우트 오계를 설하고 참석한 200여명 대원들은 불자로서의 서원을 지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성행스님은 “산목숨을 사랑하라, 주지 않는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슬과 중독성 있는 물질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스카우트 5계를 설하고 참석 청소년 대원들은 큰 소리로 “지키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연비식은 스님들이 불이 붙은 향반대 쪽으로 연비해 대원들을 배려했고 삼보륜과 연꽃 도장을 찍어줬다. 또 수계대원들에게는 단주를 채워줬다.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장 성행스님은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약삭이지만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한국 불교의 수계의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었고 이들이 부처님과 첫 인연을 맺고, 마음에 불연의 씨앗을 싹틔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스카우트 연맹은 대회기간동안 30평 규모의 잼버리 법당을 운영하고 부채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명상, 연꽃 만들기, 108배 챌린지 등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정리 조여래장)



◇사상 첫 수계법회 수계증을 수여하고 있는 스카우트 연맹장 성행 주지사님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잼버리 대원들이 환호하는 모습



◇총무원장 스님께 항건 매주는 연맹장 성행스님



◇수계법회 후 화이팅 하고 있는 잼버리 대원들과 스님들



◇청계사 대원들과 함께하고 있는 스님들

### 법보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10,000원 100부:20,000원

#### \*법보시 명단

- ♣ 서울구치소 박경선 50부, 박유진 150부
  - ♣ 인양교도소 일동포장기계 150부 김희용 50부, 김정중 50부
  - ♣ 수원구치소 김향수 50부, 김영현 50부 김민준 50부
  - ♣ 청주여자교도소 정중순 50부, 김운호 50부
  - ♣ 경주 교도소 이갑숙 50부, 이근혁 50부 이고은 50부, 윤석호 50부
  - ♣ 여주교도소 손고은 50부, 김대희 50부
-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청계사 출판부)

## 백중·칠석·학업성취 백일기도 안내

### 백 중

- 입 재 : 불기 2567년 7월 13일(음력 5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회 향 : 불기 2567년 8월 30일(음력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기도안내 : 초계 7월 19일부터 6계 8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사시에 제사를 지냅니다.
- 기도비 : 5만원
- 영가위패 : 1위당 5천원
- 영가 등 : 1만원
- 쌀 3되 (제일 때마다 영가에게 공양을 올리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치약, 칫솔, 비누, 세숫대야, 양말, 수건, 영가 옷 등은 회향일(음 7월 15일)에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 ※ 영가 옷(종이 옷)은 신도회에서 판매합니다.
- ※ 대중공양 설판제자 : 종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칠 석 기도

- 입 재 : 불기 2567년 8월 22일(음력 7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기도비 : 3만원
- 차량안내 : 백중기도 입재와 회향, 칠석 때 오전 7시, 8시, 9시, 10시, 11시 인덕원 전철역 3번 출구에서 직진하면 진참치 앞에서 걸 버스를 운행합니다.
- 문의 : 종무소 (031) 426-2221, 2348
- 은행계좌 : 109-058786-01-413 기업은행 (예금주 : 청계사)
- ※ 송금 시 종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 학업성취 백일기도

- 백중 4제로 인해 부득이 수능백일기도 입재 시간을 변경합니다.
- 입 재 : 불기 2567년 8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
- 회 향 : 불기 2567년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
- 동참금 : 20만원
- 학업성취등 : 5만원
- 차량안내 : 입재일 오전 7시, 8시, 9시, 10시, 11시에 운행합니다.
- ※ 매일 10시 30분 사시기도와 오후 2시 특별기도 있습니다.



### 절요

절요는 강원 사직과의 교과목으로 중요한 불교 입문서이다. 원제는『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要并私記)』이다. 고려 때 지눌스님이 당나라 종일 스님의 <법집별행록>의 복잡한 내용을 줄이고 자신의 견해를 써 넣어 편찬했다. 지눌스님이 입적하기 9개월 전쯤 마지막으로 펴낸 책으로 선의 종착지로 가는 길에 이르는 참선수행의 올바른 과정을 담고 있다. 후학들에게 부처님의 마음자리 공적영지를 단숨에 알고, 그 길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차근차근 나아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돈오점수를 강조하며 정혜쌍수를 역설하였다. <편집자주>

## 4頓漸修(4)

### ② 諸大祖師의 頓漸辨(3)

#### ㄷ. 禪敎人의 定慧

牧牛者가 늘 講師들이 禪法을 배우지 않는 것을 한하였다니 澄觀이 지은 眞元疏를 보다가 닭고 증하는 門을 관별한 곳에 이르러 그것이 禪旨까지 합쳐 밝힌 것을 기뻐한 까닭에 여기에 기록한다.

그 가운데 깨달음과 마음의 性相과 깨달은 定慧 두 문을 이 책(錄) 가운데 배려하여 관별하는 것은 그리 급하거나 중요한 뜻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敎를 배우는 사람들이 단지 이 글 가운데서 온전히 禪法만 거두어 밝혔다고 탓할까 걱정하여 간략히 그 得失을 분별하여 바른 믿음을 내게 하려고 한다.

능히 깨달은 門에 나아가 定慧를 밝힌 대목

로 가져야 하고 비록 고루 가진다고 하나 그것은 다만 靜을 취하는 것으로 行을 삼을 뿐이다.

曹溪는 말하기를 「나는 일체법이 제 성품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노니 본체를 떠나 법을 말하면 도리어 네 성품에 미혹한 것이다.

나는 마음에 그름 없는 것을 自性戒라 하고 마음에 어리석음 없는 것을 自性慧라 하며 마음에 어지러움 없는 것을 自性定이라 하니 이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定을 먼저 하여 慧를 밝히고 慧를 먼저 하여 定을 밝힌다고 말하지 말라.

이 같은 견해를 짓는 자는 법에 두 가지 모양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하고 또 이르되 「스스로 깨닫는 수행은 고요한데 있지 아니한 것이니 만약 전후를 정하면 곧 이는 미혹한 사람이라 勝負를 끊지 못하고 도리어 법과 나라는 생각을 내어 내가지 相(我相)人

## 방편의 바다-비유의 가르침

# 법화경

### 제바달다품(提婆達多品) 줄거리 <하>

제12 '제바달다품(提婆達多品)'은 불교에서 가장 악한 사람의 상징인 제바달다에 대한 수기와 8세 용녀의 성불이 주된 줄거리로 되어있다.

제바달다의 성불은 악인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용녀의 성불은 여인, 어린이와 사람이 아닌 용 즉 축생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제바달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종제(從弟)로 출가하기는 했지만, 범비사라왕의 아들인 아사세왕과 결탁해서 부처님의 교조적 지위를 빼앗으려고 한다.

즉 아사세왕은 범비사라왕으로부터 정권을 빼앗고 제바달다는 부처님으로부터 교권을 빼앗으려고 시도한 것이다.

아사세왕은 정권 찬탈에 성공했지만 누워치고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었고, 제바달다는 교권 찬탈에 실패하고 일찍 죽게 되었다.

당연히 제바달다는 극악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극악의 상징인 제바달다가 법화경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선지식으로 등장한다.

전생에 부처님에게 법화경을 설했다

는 것이다. 이 전생인연에 의해서 제바달다가 지는 금생의 악은 무시되어 버린다. 석존에게는 어떤 대립자도 있을 수 없게 된다.

제바달다 같은 악인을 용서해서 미음의 한을 다 풀지 못하는 아쉬움보다는, 악의 대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석존의 높은 인품을 얻는 것이 더 좋게 된

### 전생악연을 선연으로 회향하는 지혜와 자비

#### 여성, 어린이, 악인, 축생도 도 닦으면 성불

것이다.

무한한 전생의 활용과 모든 악연을 선연으로 회향하는 불도의 지혜와 자비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보통 용녀의 성불을 예로 들어서 법화경에서 여인의 성불을 설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용녀가 남자의 몸으로 바꾸어서 수행하고 성불했기 때문에 남자의 성불로 볼 수도 있다.

여하튼 부처님의 입장은 악인, 여인, 어린이, 축생을 가릴 것 없어 누구나 불도를 닦으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이치를 알고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자신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이해할 수 있어도 자신을 알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바달다>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 “나는 열심히 보시를 했다. 진기한 보물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내 몸까지 내 놓았으며, 불법을 구하기 위해 왕위를 버렸다.”며 가장 기본인 ‘보시’부터 시작했다.

부처님이 위대한 이유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지려하고 지키려할 때 부처님은 끊임없이 버리고 내어주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좋아하고 무

엇을 싫어할 수 있을까? 부처님이 성인으로 불리는 것은 자신의 학설과 견해를 현실에서 몸소 실천했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님은 누군가를 특별히 친하게 대하지도 소원하게 대하지도 않았다. 모든 이를 자비로 대했다. <제바달다품>에서 부처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원수 제바달다이지만, 그는 자신의 좋은 스승이자 벗이며 그의 도움으로 성불하게 되었다고 했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누구도 내게 상처를 줄 수 없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기나긴 여정이다. 부처님도 기나긴 성불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보배구슬을 바친 용녀가 어떻게 잘나에 성불할 수 있을까.

보배구슬을 바친 것은 깨끗한 부처를 마음에 품고 있다가 잘나에 드러내어 부처님에게 보여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보배구슬을 바치자 부처님이 곧바로 받은 것은 단숨에 깨달은 것을 의미한다.

성불이 기나긴 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이라도 깨끗한 마음을 얻는다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뉴스&뉴스

#### 초하루 법문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이는 생활 속에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초하루 법회가 지난 18일 열렸다.

이번 초하루 법회는 백종기도 중 이라서 그런가 기도하는 신도들이 폭우 속에서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에 집중하며 금강경 독송을 하는 신도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다.

이날 주지스님은 후원자인 청계사 마이트리에서 녹향원과, 희망나래 복지관에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라고 시원한 냉면을 기부 전달했다.

주지스님은 전달식에 이어서 우천 관계로 법문을 대신하여 다라니 기도로 신도들과 여법하게 기도를 마쳤다. <글 황형량님>

####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단 잼버리대회 사전훈련 및 발대식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8월 1일~12일)를 앞두고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 80여 명이 지난 7월 13일 설법전에서 발대식을 하고 불교연맹 대표단의 자세, 제목과 장구류에 올바른 착용법, 국제활동의 이해, 아영법 등 철저한 사전훈련과 준비로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연맹장 성행스님은 “156개국의 대원들이 얼굴도 다르고 언어, 문화, 생활습관 등 모든 게 다른 대원들이 모이는 자리이니 세계의 평화, 친목, 우정을 위해 한국을 대표하고 불교를 대표하는 조직의 일원으로 양보

하고 이해하고 협조하며 각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안전하고 즐거운 야영 생활을 당부했다.

황에서(중2) 대원은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색다른 경험이 기대되고 설렌다’ 고 말했다. 불교연맹은 청소년 전법을 위해 잼버리 법당을 운영하고 서브 캠프와 푸드하우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통언어로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정리 서용화수>

#### ‘청계사 신중도 속 비파 연주자 양성’



청계사에서는 전통산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불교문화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청계사 선불장에서 박정원 선생님을 비롯하여 12명의 수강생이 모여 청계사 '신중도 속 비파 연주자 양성'을 위한 10주 교육 첫 수업이 진행되었다.

주지 성행스님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274호 신중도에 표현된 다양한 기물을 바탕으로 문화재청의 주최로 의왕시와 청계사, 컬처엔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가 함께 주관하고 이번이 2회차로 신중도 속의 비파를 통해 전통악기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중도에 등장하는 신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들을 다양하게 공유하면서 한국의 문화 그리고 불교문화의 꼭짓점을 찾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직접 비파연주를 통해 배우고 익혀서 연주할 때 좋은 화음 그 자체가 법 향이다.”라고 했다.

1, 2회 수료한 후에는 의왕시 비파연주 단원으로 활동하고, 5대선사 다례제 '소유다시 전통문화축제'에 참여할 예정이고 의왕시 철도행사 등에 공연을 계획하고 열심히 연습 중이다. <글 서용화수>

#### 수능 백일 기도 입재



지난 8월 9일 설법전에서 2024학년도 대학입시 시험생 학부모들 150여 명과 총무 성건스님, 원덕 기도스님, 신도회가 동참한 가운데 수능 100일 기도 입재를 했다. 연일 폭염 주위보에도 수행생들을 위한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로 자녀가 중요한 시험에서 유감없이 실력발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한 배 한 배 절을 하였

다. 이날 총무 성건 스님은 기도 잘하는 방법으로 “백일 동안 스님과 수행생 학부모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집중하여 기도하면 그 능력이 열배, 만 배 그 이상 되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신도회장(자연)은 인사말로 “원하시는 성적이 나오길 기도드리며 부처님의 보살핌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고 했다.

이날 학부모는 물론 손자, 손녀를 위해 불 더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정진하는 노 보살님들도 많았다. 청계사 신도회에서는 기도에 필요한 예코백과 염주, 다포를 준비해 학부모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9월 27일 수능 전 50일기도, 10월 26일 21일 특별기도(경주 석굴암 철야기도, 불국사 새벽예불), 11월 16일 수능일 과목 시간별 예불이 진행 될 예정이다. <글 주향신성>

####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아르헨티나 대원 71명 청계사 방문



2023년 개최된 세계청소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조기 퇴영으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전국사찰에서 한국불교의 전통문화와 역사,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아르헨티나 대원 71명이 8월 10일 청계사를 방문하였다.

새만금에서 활동하던 불교스카우트 연맹장 성행스님은 “대원들의 초청에 한결같이 달려왔다. 태풍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있으나 오늘 청계사에서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 보내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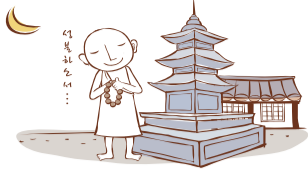
선불장과 설법전을 개방하여 청계사 부처님과 단청, 신중도 속 신인들과 비파악기, 보물 동종을 소개하며 한국불교 문화와 역사를 소개했다.

인간문화재 불화장 이수자인 이소민 선생의 지도로 신중도 속의 여러 신중을 오방색 캐릭터로 마트하고 시카인형으로 완성하고 오색단주도 만들어 각자 소장하여 추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팔과 다리 등에 판박이 스티커를 붙여보며 한국불교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원 도야스(16세)는 “이곳에서 한국에 절문화와 색깔이 다른 뜻을 배웠고, 여러 가지 맛의 간식도 먹어 보고 기쁘다”라고 했다.

주지 성행스님은 “갑자기 맞이한 손님이지만 평소 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준비했던 비파연주도 선보이고 경관 작업, 신중도 그리기 등 다양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체험으로 귀중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었고 해외 포교역할까지 수행하게 됐다” 며 지속적인 발전을 약속했다. <글 서용화수>





### 마음따라 찾아가는 산사순례 Ⅲ

한국불교 대표 종단 조계종 사찰은 전국에 3천 사암에 달 합니다. 이 사찰은 행정구역상 25교구로 구성되며 각 교구마다 본사가 설치되어 소속된 말사 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획지면으로 떠나는 '108성지 순례'는 25개 교구본사를 순례하고 '관음성지' '지장성지' '미륵성지' 주요 영험 기도처별로 찾아 나서, 신도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 지장성지⑥ 미 타 사

로 신심 깊은 불자들은 개성으로 향해 그 장소로 가보니 도승이 말 한대로 큰 부처가 있어 미타사마애불 조성에 힘을 보태 대작불사를 회향할 수 있었다고 한다. 미타사 마애여래입상은 사찰 진입로 개울가에 솟아 있는 수직 암벽에 동향으로 조성되어 있다. 4m가 넘는 거불(巨佛)

의 금동불상과 동시대인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 마애여래입상은 부처님을 조성한 시주자와 기도객의 원력이 함께 담겨 있는 듯하다. 시주는 마애부처님의 상화에 관모를 씌워 나라의 벼슬에 오르고자 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한 원력은 당시 미타사를 거쳐 도읍인 개성으로 향하는 과거 수험생들에게도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못 중생들이 죽어서 서방정토에 이르고자 하는 소원을 담아 수인(手印)을 아미타설법인으로 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미타사는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부침(浮沈)을 거듭했고 이곳 마애여래입상은 상호에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 덕분에 사찰은 중건을 거듭해 현재의 반듯한 미타사의 사격(寺格)을 갖춘 듯하다. <정리 황청량심>

### 바위에 스며든 부처님 천년세월 희망성쇠 함께 해 마애불에서 기도해 병고 벗어난 많은 영험담 내려와

동양 최대의 지장보살 성지 충북 음성 미타사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높이 4.05m의 미타사 마애여래입상이 자리하고 있고, 1982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사찰이 정비되기 전 모습은 산기슭에 눈비를 맞으며 못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졌던 것으로 보인다. 미타사 마애여래입상은 현재 복원된 미타사의 역사보다 거슬러 올라간다. 통일신라시대의 마애불 양식을 계승해 고려중기에 조성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사찰의 장건은 신라시대 원효스님으로 유향사로 불렸다고 한다. 용바위가 있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한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마애불에 대한 전설이 내려온다. 마애불이 고려시대에 조성되었고, 고려시대에는 점점 산중이었는데 이 곳 사찰에서 신심 깊은 불자가 100일 기도를 하고 내려가다가 샅갯을 쓴 한 도승을 만났는데 당신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회향했으니 이 길로 개성 어느 곳을 가면 큰 화주를 만날 것이니 그 분에게 이 곳에 마애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하면 뜻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그 길

로 상체는 돌레를 얹게 파낸 후 고무조(高浮彫, 높은 돌을 새김)로 처리하여 입체감이 두드러진다. 아래로 가면서는 차차 약화되어 선각(線刻, 선으로 새김)에 그치고 있다. 불상의 얼굴은 비만한 방형(方形,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신체에 비해 다소 커다란 편이다. 넓은 이마에는 관모(冠帽, 벼슬을 받은 이들이 썼던 모자)를 쓰고 있다. 반원을 그리고 있는 양 눈썹은 윤곽이 분명하다. 눈두덩과 두 눈의 표현은 다소 희미하나 미간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넓적한 코가 친근감을 준다. 두툼한 입술은 아래위를 살짝 눌러 지그시 다물고 있다. 빛은 듯한 양 귀는 어깨까지 늘어졌다. 양 뺨이 부푼 후덕한 모습이다. 살이 많이 오른 장대한 어깨에는 양어깨를 감싸는 통견(通肩) 형식의 대의가 걸쳐져 있다. 가슴 앞으로는 날카로운 이중의 V자형 옷자락 무늬가 늘어지고 양 소매자락과 하단 부에도 몇 줄의 규칙적인 사선 주름이 거칠게 접혀지고 있다. 손 모양 또한 전반적인 매멸로 인하여 형태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 불상은 원만한 상호와 착의 형식, 약한 조각 수법으로 이루어 볼 때, 1973년 범당 정리 작업 도중 출토된 미타사 소재



◇동양 최대 지장보살님 모셔진 미타사 마애여래입상



### 성행스님의

### 원각경 강설(12)

대승불교(大乘佛敎)의 궁극적(窮極的) 경지로 불리는 '원각경(圓覺經)'은 중생 누구나 원각(圓覺)을 갖추고 있으며 그 원각(圓覺)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명(無明)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애들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실천 체계를 제시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경전이다. 이 경은 부처님께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비롯한 열두 명의 보살과의 대화를 통하여 경이 이루어진 까닭에 12품으로 나누어 있으며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하깨비 같은 무명(無明)을 여의고 진실하고 뚜렷한 부처의 깨달음에 들 수 있을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원각경' 공부를 통하여 마음의 번뇌를 비우고 또 비워서 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열반의 가르침에 함께 할 것을 발원합니다. <편집자 주>

#### 제3장 보안보살장(2)

\*3-1 보살의 수행하는 순서  
於是에 普眼菩薩이 在大衆中이러가 卽從座起하사 頂禮佛足하며 右繞三匝하고 長跪叉手하사 以白佛言하사대 大慈世尊이시여 願爲此會의 諸菩薩衆 하사며 及爲末世一切衆生하사 演說菩薩의 修行漸次하소서 云何思惟하며 云何住持하리이고 衆生이 未悟어든 作何方便하야사 普令開悟하리이고

\*講說  
보현보살에 이어 보안보살이 질문합니다. 보안에서 '보' 는 사람을, '안' 은 지혜를 의미하며, 지혜와 자비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곧 태양이 어두운 곳을 두루 비추는 것과 같이, 자비와 지혜가 온통 두루 한 것을 말합니다.

앞장에서 문수는 오도(悟道)를 나타내고 보현은 수행을 나타내므로 오(悟)와 수(修)의 이치가 앞에서 이미 나왔으나, 수행을 일으키는 방법은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안보살이 관편으로 수행을 일으키는 방법을 삼아서 널리 여한삼매(如幻三昧)를 수습하게하고 여래의 큰 열반의 바다에 깨달아 들어가게 하고자, 부처님께 수행을 일으키는 방법을 열어 보여주기를 청한 것입니다.

앞서 문수사리보살과 보현보살이 물었던 것은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중생이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되어 보안보살이 묻는 것은 단계를 낮추었습니다. '어떻게 정사유수(正思惟修)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정사유수는 일반적으로 '선나(禪那), '선정(禪定)' 이라고 하는 데 좌선(坐禪)의 방법이 흔히 이용됩니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제기한 문제는 너무나 컸는데, 이제 보안보살이 제기한 문제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사유하며, 수행이 어느 정도 경계를 얻었다면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 등입니다. 보안보살은 말을 마친 다음 땅에 꿇어 앉아 절을 했습니다. 자비로운 보안 보살은 우리들을 위하여 부처님께 법을 묻고, 또 우리들을 위해 꿇어 앉아 절을 합니다.

\*3-2 바른 방편과 바른 사유가 없다면  
世尊이시여 若彼衆生이 無正方便과 及正思惟하면 聞佛如來의 說此三昧하고 心生迷悶하야 則於圓覺에 不能悟入하리니 願興慈悲하사 爲我輩等와 及末世衆生하사 假說方便하소서 作是語已하고 五體投地하사 如是三請하야 終而 復始어시늘

\*講說  
보안보살이 점차로 뒤는 수행을 물어 원조정정각상(圓照淸淨覺相)의 뜻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보안보살은 부처님에게 원각을 이루기 위해 1. 어떻게 점진적인 수행을 해야 하고, 2. 어떻게 사유하며, 3. 어떻게 거기에 머무는 것인지 그 방편을 설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며' 라는 질문은 초삼자가 지관(止觀)을 처음 시작하는 방법을 묻는 것이고 '어떻게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안심(安心)하는 법칙을 묻는 것입니다.

### 사찰음식 배워보기 가지된장국이

\*재료: 가지(중) 1개, 식용유, 양념(된장2큰 술, 조청2큰 술, 참기름1작은 술, 참깨가루1작은 술)

\*만드는 법:  
1. 씻은 가지를 7x0.5cm 두께로 편 썬다.  
2.팬에 기름을 두르고 가지를 노릇하게 지진다.  
3.양념재료를 섞어 된장 양념을 만든다.  
4.구운 가지 한 쪽 면에 양념을 골고루 발라 살짝 굽는다. <정리 주향진성>



『현우경(賢愚經)』 12장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舍衛國)에 계실 때, 한 스님이 근처의 숲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스님은 경을 읽었다. 그런데 독경하는 스님의 목소리가 하도 아름다워 새들까지도 모여들어 듣기를 좋아했다. 그 가운데서 유독 한 마리 새는 그 스님이 경을 읽을 때마다 날아오곤 했다. 그리고는 근처 가까운 나뭇가지 위에 앉아 주의 깊게 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새가 스님의 독경소리에 몰입해 있을 때 사냥꾼이 그 새에 총을 쏘아 죽였다. 그러나 오랜 날들을 경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온 그 새는 죽은 후에 하늘나라의 하나인 도리천의 궁궐에 영광스러운 하늘 사람으로 태어났다. 사람으로 환생한 그 새는 전생을 볼 수 있는神通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늘에 태어난 이유를 깨닫자 하늘의 꽃을 가져와 여전히 숲에서 경을 읽고 있는 스님의 주위에 흠뻑했다. 그리고 스님에게 절하여 존경과 감

#### 불상생과 방생의 공덕

### 생명사랑 이야기 100

#### 100 가능한 최고의 선물

사의 마음을 표했다. 스님은 하늘 사람이 자신에게 그러한 존경을 보이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다. 이 하늘 사람이 그동안 곁에서 경을 들던 작은 새임을 알게 된 스님은 매우 반기웠고 기뻐했다. 스님은 그에게 가능한 최고의 선물인 지혜의 선물을 주었다. 하늘 사람이 된 새에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우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하늘 사람은 스님의 훌륭한

### 스님의 독경 소리가 하도 아름다워 새들 모여들어

처럼 벗어나기 힘든 악습이나, 고통의 뿌리가 사실 오랜 악연으로부터 비롯됨을 자각하게 되고 스나아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행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중국 명나라고승 연지 주광스님>

### 청계사 정기법회 안내

- ◇ 초하루 법회  
음력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주 종상 큰스님 또는 주지스님 법문)
- ◇ 3일 신중기도  
음력 매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 보름법회  
음력 매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다라니주력기도)
- ◇ 지장재일 법회  
음력 매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광명진언사경)
- ◇ 관음재일 법회  
음력 매월 24일 오전 10시 30분(금강경독송)
- ◇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월 2, 4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불교 대학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 불교 경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 시민선원  
매주 월, 수, 오후 2시, 저녁 7시  
경내 선불장
- ◇ 마사회 법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 11시  
청계사 설법전
- ◇ 서울구치소 법회  
매주 수요일  
서울 구치소
- ◇ 의왕경찰서 법회  
매월 1회  
의왕경찰서

- ◇ 새벽 예불  
매일 새벽 4시
- ◇ 사시마지 기도  
매일 오전 10시 30분
- ◇ 저녁예불  
매일 저녁 6시 30분
- ◇ 문 의  
종무소 (031)426-2221/426-2348  
은행계좌:109-058786-01-413  
중소기업은행 (예금주:청계사)

※ 차량안내  
미가침치(구 오성갈비)앞에서 매일 오전 9시와 10시에 출발합니다. 초하루나 큰 법회(입춘, 초파일, 칠석, 동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행합니다. 내려가는 차편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 알립니다

청계사보는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를 기다립니다. 또한 '청계사보'를 함께 만들 신심 있는 출판부원을 찾습니다. 신문제작과 법보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 : 청계사 출판부
- 부장 : 조여래장 010-8382-2125
- 총무 : 주향진성 010-3745-4525

메일주소 : cksb108@hanmail.net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로376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로 청계사에
운영·지원하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이달의 후원금
금 2,441,770원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국민은행 : 870501-00-008169
(예금주-녹향원)
녹향원이 법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후원금 계좌를 개설 하
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후원을 계
획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위의 후
원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후원자분
들은 기존 계좌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CMS 자동이체는 녹향원을 방문
하지거나 매달 초하루법회에서 후원
모집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
다. 주1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봉사
를 합니다. 뜻을 함께 하실분은
녹향원 : 031426-6698
청계사 : 031426-2348, 2221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녹향원 자원봉사 명단
설재은
송생금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공덕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청평여행유람기 '뭉쳐야 산다'
특별하고 행복한 추억의 한 페이지 완성



녹향원에서는 2박3일 일정으로 '뭉쳐
야 산다' 자연휴양림 캠프 프로그램을 진
행했다.
1시간 남짓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거주
인들과 직원 모두 수확여행 떠나듯 신나
고 설렘었다.
첫째 날, 숲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과 교감하며, 나뭇잎을 가지고 손수건 물
들이기 체험을 하였다. 거주인분들이 직
접 만든 손수건을 들고 자랑하며 좋아하
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둘째 날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탈리아 마을을 방문하
여 유럽풍 마을을 감상하고, 피노키오 동상
앞에서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 뛰어다니며,
흥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다. 즐거웠던 캠프
를 마치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돌아
왔다.
녹향원 가족들 모두 특별하고 행복한 추억
의 한 페이지를 완성하게 된 것 같다.
<글:영양사 지세영>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23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Table with 5 columns: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전월이월금. It details the financial flow of donations, including designated and non-designated amounts, and the resulting balance.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23년 7월 1일 ~ 2023년 7월 30일)

A list of donors categorized by contribution amount, such as '직접후원' (Direct donation) and '자동납부' (Automatic payment), with names and amounts.

물품 후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우거지해장국, 최광진-복숭아, 청계동주민센터-라면, 수박, 닭한마리
의왕시청-PC, 모니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박, 동안양행사회화-빵, (사)마에트리-냉면,
청계사-복숭아, 설재은-전기밥솥

새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등불

7월의 기도

음력으로 7월 7일은 칠석이다. 칠석
날 저녁엔 은하수의 양쪽 끝에 있는 견
우성과 직녀성이 1년에 한번 만난다
는 전설이 있다. 원래 견우는 소를 돌
보는 별자리이고 직녀는 베를 짜는 별
자리였다. 하지만 둘이 너무 좋아해 일
을 제쳐두고 매일같이 사랑만 속삭이
자 옥황상제가 벌을 내려 은하수의 양
쪽 끝으로 쫓아 보낸 후 1년에 한번, 칠
월칠석날에만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서로 사랑하지만 1년을 기다리는 견
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건널 다리가 없어 매년
칠월 칠석 전날 밤이면
은하수의 양쪽 끝에서
한없이 울다 까치와 까
마귀가 날개를 펴서 놓
아준 오작교를 건너 하
룻밤 사랑을 나누고 다
시 1년간 헤어지는 사랑
을 반복했다.
그러기에 칠석날에는
오작교 공사에 참여하지
못한 낙오자들을 제외한
주요 명절의 하나로 각국으로 확산되
면서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
영됐다. 어느 나라에서 거행되는 우란
분절 행사는 공통적으로 조상을 위한
천도제가 포함돼 있다. 이것은 우란분
절이 목원존자가 지옥고를 받고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1천명의 스
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공승제에서 비
롯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백중행사는 전통적으
로 조상천도제가 중심이 됐다. 여기
에 농번기 사이에 잠시
휴식을 즐기는 노동축제
가 곁들여지면서 백중행
사는 사회축제의 하나
로 정착됐다. 그러나 농
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노동축제는
사회적 의미가 퇴색되고
순수 불교행사로 환원되
고 있다. 20여 년 전만 해
도 백중 때는 머슴들에
게 밀린 새경도 주고 새
웃도 선물하고 일주일



성행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칠석 때 마음을 잘 가다 들어 밝은 마음 가져
백중 맞아 선망부모 조상 천도 잘 하라는 의미

건강한 까마귀와 까치를 한 마리도 볼
수 없다고 한다. 또 칠석날 저녁에 비
가 내리면 이는 견우와 직녀가 상봉한
기쁨의 눈물이고, 이튿날 새벽의 비는
이별의 눈물이라 했다.
때문에 동양에서는 이 날이 미혼남
녀의 애뜻한 사랑과 그리움을 상징하
는 날이자 사랑에 눈이 멀어 말은 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사랑도 일
도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감계(鑑戒)의
날로 삼아 여러 행사를 벌였다. 특히
중국에서는 칠석날 밤에 부녀자들이 5
색 실을 견우, 직녀 두 별에 바쳐 바느
질과 길쌈을 잘하게 해 달라고 빌었다.
데 이를 길교전(乞巧奠)이라 불렀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모두 이때는 호박
이 잘 열리고 풍성해 호박부침을 만들
어 가족의 안녕과 이성과의 사랑의 건
승을 칠석날에 빌기도 했다.
음력 7월 15일은 백중이다. 이는 불교
의 우란분절에서 유래했으며 불교의
정도 휴가를 주어 고향을 다녀오도록
하는 풍습이 있었다. 지금은 머슴이라
는 고용제도가 사라지고 산업근로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풍습이 거
의 사라졌다.
이와 같이 한국의 음력 7월 15일은
불교의 영향으로 절에서 우란분회를
개최하여 지옥에 떨어진 조상을 천도
하는 날인 동시에 발작물의 수확에 감
사하고 벼의 풍요를 기원하며 농부들
이 한바탕 신나게 노는 날이었다. 그리
고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조상을
불러 제사를 지내는 망혼일이기도 했
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요소들
이 퇴색되어 불자들만이 절에 가서 조
상을 위해 제를 올리는 우란분절로 기
려지는 것이다.
칠석 때 마음을 잘 가다 들어서, 밝은
마음을 가지고, 백중을 맞이함에 선망
부모 조상들에게 천도를 잘 하라는 의
미가 있는 것이다.

생활의 지혜

· 옷 훑기 자국은
옷에 흠이 묻어 배면 세탁을 해도 잘 빠
지지 않는다. 이때 흠을 깨끗하게 털어낸
후 감자를 잘라 그 자리에 문질러준 후 세
탁을 하면 깨끗하게 세탁이 된다.
· 새 스타킹 오래 신으려면
새 스타킹은 따뜻한 물에 담갔다 말린
뒤 약한 온도로 살짝 다리면 오래 신을 수
있다.
<정리 황청량님>

(운)은 있지만
정해진 운명(運命)은 없습니다.
운은 노력한 결
과입니다.)

이
것
의
비
밀
이
는
<정리 심 대덕님>

A table with 6 columns and 2 rows, each containing a zodiac sign ( 쥐띠, 호랑이띠, 용띠, 말띠, 원숭이띠, 개띠, 소띠, 토끼띠, 뱀띠, 양띠, 닭띠, 돼지띠 ) and a brief fortune-telling tip for that sign.